

이구스, 전도성 소재 SLS 파우더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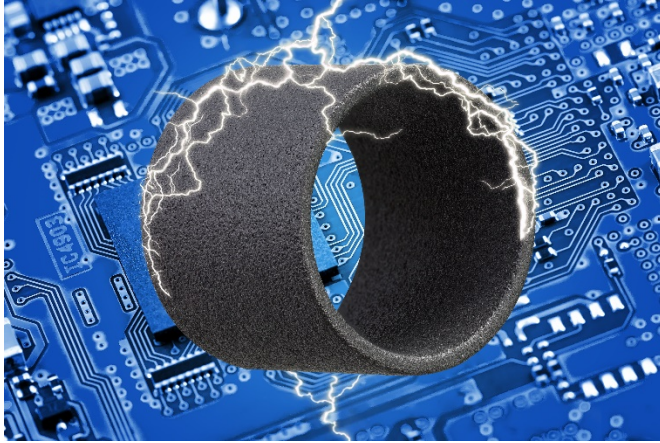
첨단 폴리머 기업, igus GmbH가 ESD 특성을 지닌 iglidur I8-ESD를 활용해 새로운 SLS 파우더를 출시했다. 검정색 파우더 형태로, 프린팅 직후 별도의 도장 작업이 필요 없어 비용 절감과 배송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분말 소재를 적층 가공하는 3D 프린팅 SLS 제조 방식의 특징은 자유로운 설계와 빠른 제작 속도에 있다. 또한, 파우더 분말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인쇄된 부품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줄어드는 추가적 장점도 있다.

신제품 I8-ESD 파우더는 이구스가 기존 보유하고 있던 I3와 I6에 이은 세 번째 SLS 파우더로, 전자 및 반도체 생산 라인 적용에 특히 알맞다. igus의 적층 가공 사업부 책임자, Tom Krause(탐 크라우제)는 'igidur I8은 $3 \times 10^7 \Omega \times \text{cm}$ 의 ESD 특성을 가지면서도 강력한 내구성을 지닌 소재'라며 자사 테스트랩에서 수행된 테스트 결과를 추가로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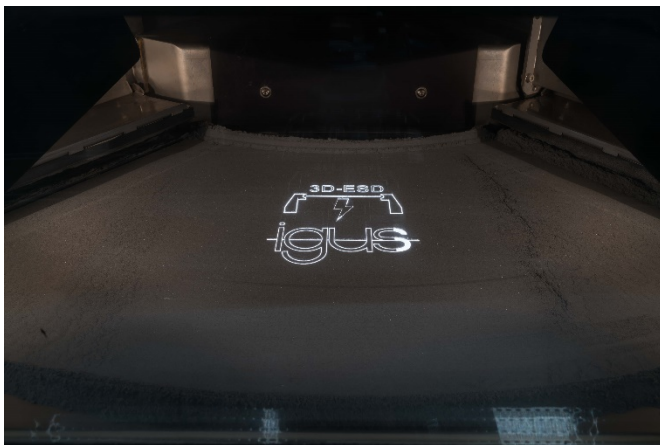
피벗팅(각도 운동) 테스트와 직동 마모 테스트 결과, iglidur I8의 내마모성이 PA12보다 두 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 탐 크라우제는 이어 "신제품 I8 파우더로 적층 가공 시 이구스의 모든 재질과 마찬가지로 급유가 필요 없고,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캡션



PM2220-1

전자 산업 적용에 특화된 전도성 SLS 소재, iglidur I8-ESD (출처: igus GmbH)



PM2220-2

신제품 iglidur I8-ESD는 검정색 소재로, SLS 가공 시 후속 도장 작업이 필요 없다. (출처: igus GmbH)

담당 연락처 :

길보라 차장
한국이구스

전화: 010 3706 2910
bgil@igus.kr

igus 소개:

igus GmbH 는 에너지 체인 및 폴리머 베어링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독일 쾰른 본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36개 지사 및 판매 센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대 테스트 연구소와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0가지 이상의 신제품 출시하는 독일의 히든 챔피언입니다.

"igus", "chainflex", "CFRIP", "conprotect", "CTD", "drylin", "dry-tech", "dryspin", "easy chain", "e-chain", "e-chain systems", "e-ketten", "e-kettensysteme", "e-skin", "energy chain", "energy chain systems", "flizz", "iglide", "iglidur", "igubal", "invis", "manus", "motion plastics", "pikchain", "readychain", "readycable", "speedigus", "triflex", "twisterchain", "plastics for longer life", "roboLink", "xiros", "xirodur" 및 "vector"는 igus® GmbH 및 igus® Inc.의 등록 상표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